

신문사의 업무특성이 사진기자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 취재기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박 명 근

신문사의 업무특성이 사진기자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 취재기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 장 세 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박 명 근

박명근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년 6월 일

## 감사의 글

병원경영학을 공부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따뜻한 격려와 충고로 마지막까지 부족한 논문을 이끌어 주신 장세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에 빠져 함몰되지 말고, 즐기면서 빠져 나오는 여유를 배우라”던 말씀, 앞으로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가슴 속에 숨어 있던 삶에 대한 열정을 끌어 내 주신 유승흠 원장님, 자상한 가르침으로 공부하는 즐거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철없는 신입사원으로 들어 와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로 내 영혼의 소리를 듣도록 격려해 주신 울산대학교병원 이철 원장님. 연구자의 올바른 자세를 깨우쳐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덕의 소치로, 힘든 고비 때마다 한숨짓고, 힘겨워할 때 그 모든 짜증을 말없이 다 받아 주던 현숙정 선생님. 당신의 섬세한 통계 지도 속에 이번 논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사진기자협회 최종욱 회장님과 경향신문 김세구 부장님, 김석구 부장님, 국민일보 강민석 부장님, 동아일보 서영수 부장님, 석동울 차장님, 문화일보 김연수 부장님, 박상문 국장님, 김구철 차장님, 서울신문 이종원 부장님, 세계일보 지차수 부장님, 조선일보 이기원 부장님, 중앙일보 주기중 부장님, 한겨레 이정우 부장님, 탁기형 부장님, 강재훈 부장님, 한국일보 이종철 부장님, 뉴시스 고명진 국장님, 연합뉴스 박일 부장님, 디지털타임스 이수용 부장님, 매일경

제 정기택 부장님, 서울경제 윤평구 부장님, 제일경제 홍정수 기자님, 헤럴드 경제 김인수 부장님, 파이낸셜뉴스 신종오 국장님, 한국경제신문 신경훈 부장님, 양윤모 편집위원님, 스포츠서울 성복현 부장님, 스포츠조선 서영필 부장님, 일간스포츠 정시종 부장님, 그리고 사진에 대한 영감을 심어 준 김길수 선생님, 아울러 일일이 지면에 담지 못하는 존경하는 사진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쁜 병원 업무 중에도 늘 관심과 도움으로 격려해 주신 원무팀 최기동 팀장님, 친형님 같은 이상락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성원해 준 원무팀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의 아니게 근무 시간을 바꿔야 했을 때 아무런 계산없이 선뜻 바꿔 주며 진실로 배려해 주던 고재욱 선생님, 그리고 백철구 계장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적정진료팀 신정희 계장님, 새마을금고 손정모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응급실을 찾을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바쁘지 않냐며 격려해 주신 아산재단 조성장 사무총장님, 홍보업무의 잔뼈가 굵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아산재단 원치용 이사님, 지금은 강릉아산병원에 계신 내 마음속 스승 신대식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즐겁게 해준 우리 동기들, 그리고 병원행정학과 선배님, 후배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선물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어머님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학교 수업을 맞추기 위해 삼교대를 할 때, 덩달아 똑같이 삼교대를 하시면서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2006 년 7 월**

**박 명 근 올림**

# 목 차

국문요약 .....	iv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b>II. 이론적 고찰</b> .....	5
1. 사진기자의 업무적인 특성 .....	5
2.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 .....	7
3. 건강행위(Health behavior) .....	9
4. 신문사 기자의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에 관한 선행 연구 .....	9
<b>III. 연구 방법</b> .....	11
1. 연구 대상 .....	11
2. 자료수집 방법 .....	11
3. 조사변수 .....	12
4. 분석방법 .....	14
5. 신뢰도 검증 .....	14
<b>IV. 연구 결과</b> .....	16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6
2. 취재갈등과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비교 .....	18

3.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	20
4.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 비교 .....	23
5. 사진기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 .....	26
<b>V. 고 찰</b> .....	28
<b>VI. 결 론</b> .....	34
참고문헌 .....	37
부 록 .....	40
<b>ABSTRACT</b> .....	51

## 표 목 차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 결과 .....	15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7
<표 3>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재갈등과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비교 .....	19
<표 4>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	21
<표 5>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비교 .....	24
<표 6> 사진기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	27

##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신문사의 업무특성이 사진기자의 건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내 주요 일간지에 근무하는 사진기자 총 304명(사진기자 152명, 취재기자 15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특성에 따른 취재갈등 및 사회심리적 건강수준(PWI-SF)의 비교 분석한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들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자 집단보다는 기혼자 집단에서 그리고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재갈등의 수준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해 취재갈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건강수준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근무기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취재기자가 사진기자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면,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주요 변수로는 연령과 근무기간으로서, 연령은 30-40대인 경우, 근무기간은 5-10년 미만의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30-40대 및 5-10년 근무기간의 기자들이 가장 많은 취재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고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 간의 영역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영역으로는 '물리환경',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는 취재기자들이 사진기자 보다 높았으나, '물리환경'의 경우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기자들 직종 간에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흡연, 음주, 운동, 정기검진, 건강식품복용, 규칙적 수면, 그리고 하루 세끼의 규칙적 식사 등의 7개의 건강행위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로는 흡연, 음주, 운동 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 연령층에서 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정기검진과 규칙적 식사에서는 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학력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의 정기검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5-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이상인 집단에서 규칙적 운동 실천율과 정기검진 수검율, 그리고 규칙적 식사의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간의 건강행위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로는 직무 요구로서 취재에 대한 압박감, 책임 등과 같은 직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식품의 경우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복용하

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는 규칙적 수면으로서 물리환경, 직무요구,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적 수면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음주(주 1회 이하 vs 주 2회 이상), 운동, 정기검진의 경우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 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못하였지만,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전향적 연구가 요청된다.

---

핵심되는 말 : 사진기자, 직무 특성, 직무 스트레스, 건강행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의 건강문제는 전통적인 감염성 질병이나 중독성 질병은 점차 감소하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의 높은 사망률이나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질환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일순 등, 1990). 직무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개인의 동기나 능력에 맞는 직무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개인의 적응, 대처 능력이 직무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강승훈, 2000).

직무 스트레스는 탈진, 우울증, 직무불만족과 같은 심리학적인 문제와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임신장애를 일으키며, 근골격계 질환, 위궤양, 류마티스성 관절염, 면역기능의 저하, 과로사, 피부와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장세진, 2002).

한편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므로, 지속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율권의 결여, 일방적인 지시, 급여 수준, 시간에 쫓기는 어려움 등,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역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소이다(박광희와 유화숙, 2003).

일반 직장인들과 다소 다른 업무 특성을 갖는 사진기자와 같은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신문사 사진기자들은 사건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취재 보도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현장에서 겪는 경험은 일반 취재기자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현장성과 시각성을 중시하는 업무 특성은 특종과 낙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는 무거운 사진 장비는 근골격계에 큰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은 신문사 사진기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업무 특성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다.

직무 스트레스는 탈진, 우울증, 직무불만족과 같은 심리학적 문제와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임신장애를 일으키며, 근골격계 질환, 위궤양, 류마티스성 관절염, 면역기능의 저하, 과로사, 피부와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장세진, 2002).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은 발생전 예방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양식과 행태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최미경, 2001).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이후에 스트레스와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탐색연구(이미숙, 1996; 장세진, 1996)가 포함된다.

그동안 신문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상태를 측정해 보고 이 둘의 관련성을 구명해 보고자 했던 연구(김진희, 1996)가 있었으나 이는 신문사 내의 일반 기자직, 사무직, 공무원 등 직종 간 스트레스 비교로 다양한 직종의 스트레스 비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직종 간에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화기계와 우울성향에서는 직종별로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호흡기계, 안·피부계, 구강·항

문제, 정신안정성, 일반상태, 건강지수에서는 직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성향은 공무원보다 기자직에서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었다(김진희, 1996).

국민의 건강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인이 실제로 본인들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박두혁과 신재은, 1996)에서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스포츠지, 방송기자를 망라하여 과학부, 사회부, 편집부기자를 연구대상으로 언론인들에 대한 건강의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에서는 사진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 특성에서 필연적으로 연유하는 현장성과 시각성을 중시하는 업무특성이 오히려 사진기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당위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사진기자들의 업무특성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신문사 기자, 그중에서도 신문사내에서 사진기자의 업무 특성이 사진기자 개인의 건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진기자협회에 소속된 서울시내 주요 신문사의 사진기자를 대상으로, 사진기자의 업무 특성이 건강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인으로서 신문사 기자가 수행하는 독특

한 업무 내용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사진기자의 업무특성과 건강행태 실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Ⅱ. 이론적 고찰

### 1. 사진기자의 업무적인 특성

#### 가. 사진기자는 누구인가

기자가 기사를 펜이나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하듯이 사진기자는 카메라를 이용해 기록하여 보도한다. 그리고 기사는 핵심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낙중했을 경우라도 남의 기사를 참고로 해서 완벽한 기사를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반해 사진의 경우 필름의 기록이 없다면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방법이 없다. 낙중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남의 사진을 인용한다든지, 보완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신문에 난 사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꼭 게재해야만 하는 특종사진일 경우 제공한 신문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기자가 신문이나 잡지, 방송에서 사건의 상황이나 결과를 글이나 말로써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사건현장을 사진으로 설명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이병훈, 1999).

#### 나. 사진기자의 장비

대부분의 사진기자가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휴대하는데 한대에는 짧은 줌렌즈를, 또 다른 한대에는 긴 줌렌즈를 장착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앵글을 구사한다. 카메라 한대로는 렌즈를 바꿔 끼우는 순간에 결정적

인 장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항상 고장 날 개연성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대만 가지고는 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안렌즈나 파노라마용 카메라인 와이드 룩스를 활용할 때도 있으며 중형 카메라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 송고용 전산 장비인 노트북과 스캐너, 여분의 배터리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알루미늄제 사다리도 기본 장비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어야 할 취재에는 높은 앵글을 위해서 사다리를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야간 촬영이나 망원렌즈를 사용할 때는 삼각대도 필수적이다. 항상 취재수첩과 필기도구도 휴대해야만 정확한 사진설명을 쓰기 위해 메모할 수 있다.

#### 다. 특종과 낙종

특종은 신문사마다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 빨리 보도했다고 특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동업 라이벌지가 그 기사를 받아 게재해야 한다. 'OO신문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명확한 게재가 아니더라도 기사내용을 그대로 베꼈거나 누가 봐도 따라온 기사임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경쟁지 가운데 적어도 3/4이상이 이를 받아 게재해야 특종이 된다. 셋째, 일정 수의 신문이 따라 게재했더라도 일정 크기로 보도되어야 한다. 낙종은 타사가 다 썼는데 혼자서 빠지면 낙종이다. 특종에 특종상이 주어지듯 낙종에는 처벌이 따른다(이상우와 류창하, 1995).

## 라. 신문의 마감시간(데드라인)

마감시간(데드라인)이란 글자 그대로 ‘죽음의 선’, 곧 사선(死線)이다. 여가서 말하는 선이란 마감시간을 말한다. 이 선을 넘으면 아무리 좋은 기사라도 그것은 기사로서 실리지 못하고 죽어 버린다. 데드라인이란 용어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데드라인은 판마다 있게 된다. 곧 뉴스의 시의성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종과 낙종은 바로 이 데드라인과의 또 다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

### 가.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 동기부여, 성과 등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다방면의 많은 연구와 그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트레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작업 조직 내 직무 스트레스는 더욱 그러하다(이강성, 1987).

Selye(1974)는 스트레스를 “내외적 욕구에 대한 인체의 불특정한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스트레스는 특정한 생활을 지향하는 반응이 아니라 인체가 자극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불특정한 에너지의 동원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인체 내에서 일반적인 에너지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상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Selye는 스트레스를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이로운 것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유익한 스트레스를 ‘유익 스트레스(eustress)’, 해로운 스트레스를 ‘유해스트레스(distress)’라고 하였다.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중한 업무나 역할갈등, 그리고 업무자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 고혈압, 당뇨병, 흡연, 체지방 분포와 관련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율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장세진, 2002; 조성기, 2005).

#### 나. 직무만족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이란 임금이나 관리 그리고 직무내용 등 직무조건에 대한 정의적 반응으로서 보통 사기나 직장생활의 질환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Smith(1992)는 직무만족이란 각 개인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 또는 이러한 감정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McCormick(1979)은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들이 그의 직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직무만족의 개념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의 관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언행을 통해 유추해 낼 수 있을 뿐이다. 또 직무만족은 원하는 것과는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의 개념은 사기나 직무몰입과 관련되면서 또한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기나 만족은 둘 다 종업원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기란 특정 그룹이나 조직의 목표에 만족스러워 하며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이를 계속 추구하려는 자발성을 의미한다(정영송, 2000).

### **3. 건강행위(Health behavior)**

질병에 대한 별다른 자각증세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행태를 말한다.

의학적 검사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건강을 진단해 보는 경우도 건강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신체 활력증진을 위한 체조, 운동, 영양제 복용, 식습관 조정 등도 건강행위에 속한다(문창진, 2001). 이 연구에서는 사진기자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정기적인 검진이나 진료, 보약이나 영양제와 같은 건강식품, 땀이 날 정도의 운동,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 하루 흡연량, 음주를 변수로 사진기자들의 건강행태를 측정하고자 했다.

### **4. 신문사 기자의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에 관한 선행 연구**

근로자들의 직업성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신

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김진희, 1996)한 것으로, 연구결과 그동안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직종별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직종별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은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강상태가 단순히 직종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 즉, 성별, 연령, 결혼상태, 근무년수, 결근유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연구결과 기자직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기자직이 사무직이나 공무직에 비하여 일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시간적 긴박성과 책임성, 그리고 의사 결정권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능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현대 산업구조나 근로여건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불만과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직무하중과 직무 자율성의 측면에서 이를 파악하려고 한다. 직장 내에서 직무에 대한 통제가 적고, 직무의 능동적 활동성이 보장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차봉석 등, 1989; 김진희 1996).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사진기자의 업무특성과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사진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일간지 남, 여 사진기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진기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비교집단으로 대조군을 설정하였는데 주어진 환경이 비슷한 동일 신문사의 일반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사진기자 152명, 취재기자 152명, 총 304명이었다.

#### 2.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6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주요 일간지 23개 신문사를 방문하여, 각 사의 사진부장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후 협조를 득하여, 사진기자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진부를 통해 신문사내의 일반 취재부서의 기자에게도 동일한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30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사진기자 152부, 일반 취재기자 152부였다.

### 3. 조사 변수

#### 가. 직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평가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 24문항과 물리환경의 3문항 등 총 27문항을 이용하였다. KOSS-SF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의 부 적절성 3문항, 직장문화 4문항, 물리환경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의 점수는 아래와 같은 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text{하부 직무 스트레스} = \frac{(\text{영역별 실제점수} - \text{문항수}) \times 100}{(\text{예상 가능한 최고 점수} - \text{문항수})}$$

#### 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을 위해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를 기초로 개발된 18문항의 단축형 PWI(PWI-SF)(장세진, 2000)를 사용하였다. PWI-SF는 4점 척도(0-1-2-3)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점을 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PWI-SF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 신뢰도, 우울, 일반건강 및 생명력, 그리고 수면장애 및 불안 등의 수준을 평가한다. PWI-SF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다. 취재갈등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구타, 폭행, 언어 폭력, 취재 경쟁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의 경험, 장시간 현장 대기(일명 '뺨치기') 등의 '취재갈등'은 신문 기자들의 주요한 직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5가지의 취재갈등의 문항에 대해 '예'(2점), '아니오'(1점)로 응답하게 하여 취재갈등 수준을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재 현장에서 폭력이나 구타, 취재경쟁으로 인한 동료와의 갈등 경험, 그리고 장시간 대기 등과 같은 취재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라. 건강 행위

이 연구에서는 건강 행위를 흡연, 음주, 운동, 정기검진, 건강식품 복용, 규칙적 식사 및 규칙적 수면 등의 7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흡연의 경우 흡연과 비흡연(과거흡연 포함)으로, 음주는 '주 1회 이하'와 '주 2회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음' 과 '주 1회 이상'으로 이분

하였다. 정기검진, 건강식품 복용, 세끼의 규칙적 식사, 그리고 규칙적 수면은 '예'와 '아니오'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방법

첫째, 직무 스트레스 문항과 PWI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업무특성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진기자의 업무특성과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5. 신뢰도 검정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 특성 또는 구성을, 비교 가능한 독자적인 측정방법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의존가능성,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언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의 측정방법으로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동일한 대상에 시간을 달리 하여 적용결과를 비교하는 검증-재검증, 항목분할 측정치의 상관도, 내적일관성 등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신뢰성의 측정도구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문항 항목에서 Cronbach  $\alpha$ 계수가 0.6이상으로 문항 간에 높은 신뢰성을 보여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 결과

문항 내용		Cronbach $\alpha$
	물리환경	.793
	직무요구	.693
	직무자율성 결여	.697
	관계갈등	.680
직무 스트레스	직무불안정	.691
	조직체계	.670
	보상부적절	.689
	직장문화	.796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882

## IV. 연구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취재기자 50.0%, 사진기자가 50.0%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89.8%, 여자가 10.2%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10.2%, 30~39세가 47.0%, 40~49세가 37.8%, 50세 이상이 4.9%로 85% 가량이 30~40대 연령층이었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 25.7%, 기혼이 74.3%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24.0%, 천주교가 12.8%, 불교가 13.8%, 무교가 49.3%로 절반 가량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하가 3.6%, 대졸이 67.4%, 대학원졸 이상이 28.9%로 거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39.5%, 300~400만원이 16.4%, 400~500만원이 17.8%, 500만원 이상이 19.1%였고, 근무기간은 3년 이하가 8.2%, 3~5년 미만이 11.2%, 5~10년 미만이 22.7%, 10년 이상이 57.9%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4.4%, 계약직이 5.6%로 정규직이 대부분이었다 <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	%
구분	취재기자	152	50.0
	사진기자	152	50.0
성별	남자	273	89.8
	여자	31	10.2
연령	29세 이하	31	10.2
	30~39세	143	47.0
	40~49세	115	37.8
	50세 이상	15	4.9
결혼상태	미혼	78	25.7
	기혼(사별포함)	226	74.3
종교	기독교	73	24.0
	천주교	39	12.8
	불교	42	13.8
	무교	150	49.3
학력	전문대졸 이하	11	3.6
	대졸	205	67.4
	대학원졸 이상	88	28.9
	300만원 미만	120	39.5
월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	50	16.4
	400~500만원 미만	54	17.8
	500만원 이상	58	19.1
	무응답	22	7.2
	3년 미만	25	8.2
근무기간	3~5년 미만	34	11.2
	5~10년 미만	69	22.7
	10년 이상	176	57.9
고용형태	정규직	287	94.4
	계약직	17	5.6

## 2. 취재갈등과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비교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구타, 폭행, 언어 폭력, 취재 경쟁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의 경험, 장시간 현장 대기(일명 '뺨치기') 등의 취재갈등은 신문 기자들의 주요한 직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특성에 따른 취재갈등 및 사회심리적 건강수준(PWI-SF)의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취재갈등을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자 집단보다는 기혼자 집단에서 그리고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재갈등의 수준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해 취재갈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건강수준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근무기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취재기자가 사진기자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05$ ).

<표 3>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재갈등과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의 비교

평균(표준편차)

	취재갈등		사회심리적 건강수준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성				
남자	8.3±1.4	.000	25.8±7.0	.083
여자	6.9±1.3		23.4±7.5	
연령(세)				
~29	7.4±1.4	.014	23.2±6.1	.124
30~39	8.1±1.4		26.4±7.5	
40~49	8.2±1.5		25.1±6.9	
50 이상	8.9±1.5		25.7±4.8	
결혼상태				
미혼	7.6±1.5	.002	25.8±7.3	.811
기혼	8.3±1.4		25.5±7.0	
교육수준				
대졸이하	8.1±1.5	.591	25.8±7.1	.444
대학원졸	8.1±1.4		25.1±7.0	
근무기간				
~5년미만	7.4±1.5	.000	24.9±7.2	.551
5~10년미만	8.1±1.4		26.3±7.5	
10년이상	8.4±1.5		25.5±6.9	
직종				
취재기자	7.4±1.4	.000	26.0±6.9	.247
사진기자	8.8±1.2		25.1±7.3	

### 3.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면, '물리환경'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물리환경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았다( $p<0.05$ ). '직무 요구'는 20대 와 50대의 연령층에 비해 30-40대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직무 자율성 결여'의 영역에서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높았다( $p<0.05$ ). '관계갈등' 역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높았고 근무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의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직무불안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미혼자 집단에 비하여 기혼자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근무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조직체계'는 30대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고, '보상부적절'의 영역에서는 30-40대 연령층의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고 근무기간 역시 30-40대 연령층인 5-10년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5$ ). '직장문화'의 영역 역시 30대와 근무기간 5-10년 미만의 기자들에서 가장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주요 변수로는 연령과 근무기간으로서, 연령은 30-40대인 경우, 그리고 근무기간은 5-10년 미만의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표 4>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비교

평균(표준편차)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성								
남자	53.1±15.8	.001	61.7±13.5	.379	42.9±13.3	.036	43.7±13.5	.047
여자	43.3±12.5		58.6±18.2		40.3±11.8		38.5±13.0	
연령(세)								
~29	47.0±14.3	.056	52.8±12.4	.001	40.1±12.3	.056	40.0±12.6	.389
30~39	53.8±16.5		63.4±13.9		44.8±12.5		44.3±14.5	
40~49	50.5±14.6		61.7±14.1		40.9±13.4		42.5±12.4	
50 이상	57.0±17.2		27.1±11.7		40.0±16.7		44.4±13.9	
결혼상태								
미혼	50.2±15.7	.223	59.3±15.1	.146	43.2±13.4	.668	41.8±14.8	.262
기혼	52.8±15.8		62.0±13.7		42.5±13.1		43.8±12.9	
교육수준								
대졸이하	51.7±15.5	.601	61.1±13.6	.605	43.1±13.4	.216	42.2±13.1	.064
대학원졸	52.8±16.4		62.0±15.3		41.1±14.8		45.3±14.2	
근무기간								
~5년미만	48.6±16.1	.161	57.3±14.3	.050	42.0±13.9	.587	39.4±11.5	.032
5~10년미만	53.4±15.6		62.6±13.7		44.0± 9.5		45.8±14.1	
10년이상	52.9±15.6		62.3±13.9		42.2±14.0		43.4±13.7	
직종								
취재기자	44.9±12.7	.000	62.5±14.5	.153	43.4±14.7	.275	45.0±14.4	.017
사진기자	59.1±15.3		60.2±13.6		14.8±11.3		41.3±12.4	

<표 4> (계속)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평균±표준편차	p값
성								
남자	59.9±19.9	.298	54.9±13.5	.345	51.9±15.6	.072	42.1±11.7	.656
여자	55.9±19.5		52.4±14.8		16.3±16.6		43.1±13.4	
연령(세)								
~29	45.2±25.2	.000	45.4±12.5	.000	39.6±14.8	.000	37.9±11.1	.015
30~39	59.9±19.4		57.6±13.8		54.7±15.7		44.3±12.3	
40~49	61.8±17.9		53.5±12.9		51.0±14.1		40.8±11.0	
50 이상	67.8±13.3		54.7±13.6		46.7±17.4		40.6±12.1	
결혼상태								
미혼	57.8±23.2	.037	53.0±14.9	.222	49.4±18.7	.280	43.5±12.6	.247
기혼	60.9±18.2		55.2±13.2		52.0±14.6		41.7±11.6	
교육수준								
대졸이하	58.5±20.1	.161	53.9±12.7	.138	50.5±15.4	.131	42.1±11.8	.857
대학원졸	62.1±19.1		56.5±15.6		53.5±16.5		42.3±12.1	
근무기간								
~5년미만	50.3±12.9	.000	51.0±13.9	.087	46.8±17.6	.027	40.6±12.7	.040
5~10년미만	62.9±19.4		55.4±13.0		54.4±15.2		45.5±10.0	
10년이상	61.3±17.7		55.6±13.8		51.8±15.0		41.8±11.6	
직종								
취재기자	59.9±17.8	.715	56.6±13.3	.020	54.0±16.1	.005	43.2±12.5	.140
사진기자	59.1±20.0		52.9±13.7		48.8±15.0		41.2±11.1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 간의 영역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영역으로는 '물리환경',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는 취재기자들이 사진기자보다 높았으나, '물리환경'의 경우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 4.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 비교

흡연, 음주, 운동, 정기검진, 건강식품복용, 규칙적 수면, 그리고 하루 세 끼의 규칙적 식사 등의 7개의 건강행위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로는 흡연, 음주, 운동 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p<0.05$ ). 연령별로는 30-40대 연령층에서 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정기검진과 규칙적 식사에서는 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p<0.05$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자 집단보다 기혼자 집단의 정기검진 수검율이 높았고, 규칙적 식사의 비율도 기혼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교육수준의 경우는 정기검진 만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학력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의 정기검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5년 이상인 집단에서 규칙적 운동 실천율과 정기검진 수검율, 그리고 규칙적 식사의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p<0.05$ ).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간의 건강행위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비교

	흡 연		음 주		운 동	
	예	아니오	주1회이하	주2회이상	예	아니오
성						
남자	142 (52.2)	130 (47.8)	91 (34.0)	177 (66.0)	185 (67.8)	88 (32.2)
여자	3 (10.0)	27 (90.0)	21 (67.7)	10 (32.3)	14 (45.2)	17 (54.8)
P값	.000		.000		.021	
연령(세)						
~29	11 (36.7)	19 (63.3)	14 (46.7)	16 (53.3)	13 (41.9)	18 (58.1)
30~39	71 (49.7)	72 (50.3)	46 (32.9)	94 (67.1)	95 (66.4)	48 (33.6)
40~49	53 (46.9)	60 (53.1)	44 (38.9)	69 (61.1)	82 (71.9)	32 (28.1)
50 이상	10 (66.7)	5 (33.3)	8 (53.3)	7 (46.7)	9 (60.0)	6 (40.0)
P값	.279		.255		.019	
결혼상태						
미혼	36 (46.8)	41 (53.2)	26 (34.7)	49 (65.3)	47 (60.3)	31 (39.7)
기혼	109 (48.4)	116 (51.6)	86 (38.4)	138 (61.6)	152 (67.3)	74 (32.7)
P값	.901		.660		.326	
교육수준						
대졸이하	106 (49.8)	107 (50.2)	80 (38.1)	130 (61.9)	135 (62.8)	80 (37.2)
대학원졸	39 (44.3)	49 (55.7)	32 (36.4)	56 (63.6)	63 (71.6)	25 (28.4)
P값	.463		.880		.184	
근무기간						
~5년미만	26 (45.6)	31 (54.4)	24 (42.1)	33 (57.9)	29 (50.9)	28 (49.1)
5~10년미만	28 (41.2)	40 (58.8)	27 (40.9)	39 (59.1)	47 (68.1)	22 (31.9)
10년이상	89 (50.9)	86 (49.1)	61 (35.1)	113 (64.9)	121 (68.8)	55 (31.3)
P값	.376		.528		.041	
직종						
사진기자	77 (50.7)	75 (49.3)	95 (63.3)	55 (36.7)	96 (63.2)	56 (36.8)
취재기자	68 (45.3)	82 (54.7)	92 (61.7)	57 (38.3)	103 (67.8)	49 (32.2)
P값	.417		.870		.469	

<표 5> (계속)

	정기검진		건강식품복용		규칙적 수면		규칙적 식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성									
남자	149 (55.0)	122 (45.0)	113 (41.5)	159 (58.5)	122 (45.0)	149 (55.0)	168 (61.8)	104 (38.2)	
여자	13 (41.9)	18 (58.1)	16 (51.6)	15 (48.4)	14 (45.2)	17 (54.8)	16 (51.6)	15 (48.4)	
P값	.234		.377		1.000		.367		
연령(세)									
~29	9 (29.0)	22 (71.0)	17 (54.8)	14 (45.2)	12 (38.7)	19 (61.3)	18 (58.1)	13 (41.9)	
30~39	66 (46.2)	77 (53.8)	53 (37.3)	89 (62.7)	58 (40.6)	85 (59.4)	75 (52.4)	68 (47.6)	
40~49	80 (71.4)	32 (28.6)	54 (47.4)	60 (52.6)	58 (51.3)	55 (48.7)	81 (71.1)	33 (28.9)	
50 이상	6 (40.0)	9 (60.0)	5 (33.3)	10 (66.7)	7 (50.0)	7 (50.0)	9 (64.3)	5 (35.7)	
P값	.000		.165		.308		.025		
결혼상태									
미혼	29 (37.2)	49 (62.8)	30 (38.5)	48 (61.5)	28 (35.9)	50 (64.1)	37 (47.4)	41 (52.6)	
기혼	133 (59.4)	91 (40.6)	99 (44.0)	126 (56.0)	108 (48.2)	116 (51.8)	147 (65.3)	78 (34.7)	
P값	.001		.472		.080		.008		
교육수준									
대졸이하	106 (49.8)	107 (50.2)	91 (42.5)	123 (57.5)	49 (43.9)	120 (56.1)	123 (57.5)	91 (42.5)	
대학원졸	56 (63.6)	32 (36.4)	38 (43.2)	50 (56.8)	42 (48.3)	45 (51.7)	60 (68.2)	28 (31.8)	
P값	.039		1.000		.576		.110		
근무기간									
~5년미만	18 (31.6)	39 (68.4)	29 (51.8)	27 (48.2)	19 (33.3)	38 (66.7)	28 (49.1)	29 (50.9)	
5~10년미만	27 (39.1)	42 (60.9)	26 (37.7)	43 (62.3)	33 (47.8)	36 (52.2)	37 (53.6)	32 (46.4)	
10년이상	116 (66.7)	58 (33.3)	73 (41.5)	103 (58.5)	84 (48.3)	90 (51.7)	118 (67.4)	57 (32.6)	
P값	.000		.258		.129		.019		
직종									
사진기자	80 (53.3)	70 (46.7)	67 (44.1)	85 (55.9)	70 (46.7)	80 (53.3)	98 (64.9)	53 (35.1)	
취재기자	82 (53.9)	70 (46.1)	65 (41.1)	89 (58.9)	66 (43.4)	86 (56.6)	86 (56.6)	66 (43.4)	
P값	1.000		.678		.652		.172		

## 5. 사진기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

이 연구의 주 연구 대상자인 사진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우선,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로는 직무 요구로서 취재에 대한 압박감, 책임 등과 같은 직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식품의 경우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복용하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는 규칙적 수면으로서 물리환경, 직무요구,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적 수면을 하지 못하였다( $p < 0.05$ ). 그러나 음주(주 1회 이하 vs 주 2회 이상), 운동, 정기검진의 경우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사진기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흡 연		음 주		운 동	
	B	P	B	P	B	P
물리환경	-.004	.760	-.004	.780	-.007	.634
직무요구	-.026	.039	-.010	.396	-.015	.226
직무 자율성 결여	-.011	.336	-.014	.231	-.001	.954
관계갈등	-.001	.950	.002	.887	-.009	.464
직무불안정	-.001	.889	.003	.743	.003	.779
조직체계	-.015	.266	-.002	.899	-.016	.225
보상부적절	-.020	.070	-.007	.520	-.003	.819
직장문화	-.023	.105	.005	.702	-.010	.496

\*: adjustment for 연령, 결혼상태

<표 6>(계속)

	정기검진		건강식품 복용		규칙적 수면		규칙적 식사	
	B	P	B	P	B	P	B	P
물리환경	.008	.606	.028	.046	.032	.026	.020	.149
직무요구	.012	.334	.000	.990	.025	.039	.010	.408
직무 자율성 결여	.019	.145	.009	.416	.004	.730	.014	.218
관계갈등	.000	.992	.001	.943	.016	.191	.027	.028
직무불안정	.007	.454	.001	.892	.003	.725	-.001	.873
조직체계	.003	.817	.019	.163	.034	.017	.016	.205
보상부적절	.015	.184	.010	.355	.021	.057	.020	.064
직장문화	.019	.217	.011	.453	.004	.795	.016	.251

\*: adjustment for 연령, 결혼상태

## V. 고 찰

신문사라고 하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진기자들은 사건 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여 한 장의 사진 속에 진실을 담아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동안 사진기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질병이나 스트레스는 언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신문사의 독특한 업무 특성이 사진기자 개인의 건강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데 가치가 있다. 신문사의 고유한 업무특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연계되어 사진기자 개인의 건강관련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특성에 따른 취재갈등 및 사회심리적 건강수준(PWI-SF)의 비교 분석한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들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자 집단보다는 기혼자 집단에서 그리고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재갈등의 수준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해 취재갈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진기자들이 갖는 취재의 현장성과 위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건강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건강수준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근무기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취재기자가 사진기자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직종 간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면, '물리환경'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으로 남

자들이 여자보다 물리환경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취재를 할당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 요구'는 20대 와 50대의 연령층에 비해 30-40대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직무 자율성 결여'의 영역에서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높았다. '관계갈등' 역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높았고 근무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의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직무불안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미혼자 집단에 비하여 기혼자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근무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조직체계'는 30대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고, '보상부적절'의 영역에서는 30-40대 연령층의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고 근무기간 역시 30-40대 연령층인 5-10년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직장문화'의 영역 역시 30대와 근무기간 5-10년 미만의 기자들에서 가장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주요 변수로는 연령과 근무기간으로서, 연령은 30-40대인 경우, 그리고 근무기간은 5-10년 미만의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30-40대 및 5-10년 근무기간의 기자들이 가장 많은 취재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고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취재기자과 사진기자들 간의 영역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영역으로는 '물리환경',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는 취재기자들이 사진기

자 보다 높았으나, '물리환경'의 경우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기자들 직종 간에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진기자들이 현장의 위험성과 중장비 동원에 따른 특성으로 인하여 취재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환경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외부적 환경 보다는 내부적인 조직적 요인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흡연, 음주, 운동, 정기검진, 건강식품복용, 규칙적 수면, 그리고 하루 세 끼의 규칙적 식사 등의 7개의 건강행위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로는 예측한대로 흡연, 음주, 운동 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 연령층에서 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정기검진과 규칙적 식사에서는 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천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년에 이르면서 점차 건강의 문제가 발견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운동과 정기검진 그리고 규칙적 식사의 실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학력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의 정기검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5-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이상인 집단에서 규칙적 운동 실천율과 정기검진 수검율, 그리고 규칙적 식사의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 역시 중년에서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간의 건강행위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이 연구의 주 연구 대상자인 사진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로는 직무 요구로서 취재에 대한 압박감, 책임 등과 같은 직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식품의 경우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복용하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는 규칙적 수면으로서 물리환경, 직무요구, 조직 체계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적 수면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음주(주 1회 이하 vs 주 2회 이상), 운동, 정기검진의 경우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 음주 등은 직무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동안의 개인적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운동 역시 직무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규칙적 수면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기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몇 가지 조사에서는 먼저, 요즘 사진기자를 특별히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았고, '소재의 빈곤'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으로 보이며, 언론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진취재 보다는 희생자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현장기록을 우선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언론인으로서의 확고한 사명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는 설명과 이해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으로 취재명령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거부감 없이 임한다고 응답해 사진기자로서의 직업의식과 바람직한 언론인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시내 주요 일간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제기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신문사 사진기자라고 하는 직업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인지를 전국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시점에서 자료를 모아 분석한 횡단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직무 스트레스원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측정도구상의 문제로는 이번 연구가 설문지법만을 사용하였는데, 설문지법에 의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설문지법은 응답자의 반응이나 태도, 답변의 이유 등에 추가설명이 부족한 한정된 정보만이 획득 가능하므로, 인터뷰와 같은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응답자로부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집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의 표집은 여러 신문사에서 균등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 신문사에 몰린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수, 진보, 중도 등과 같은 신문사별로 지향하는 논조에 따라 사진기자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같은 변수가 연구 결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신문사내에서 사진기자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사내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보건 전문가의 배치가 요구된다. 사진기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은 사진기자가 온전하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선행조건이라는 면에서 안정적인 제반 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사진기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감소시켜 주고 심리적 만족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VI. 결 론

이 연구는 신문사가 갖고 있는 업무특성이 사진기자의 건강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내 주요 일간지에 근무하는 기자 총 304명(사진기자 152명, 취재기자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특성에 따른 취재갈등 및 사회심리적 건강수준(PWI-SF)의 비교 분석한 결과, 여자보다는 남자들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자 집단보다는 기혼자 집단에서 그리고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재갈등의 수준이 높았고, 직종별로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해 취재갈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심리적 건강수준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근무기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취재기자가 사진기자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련성을 보면,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주요 변수로는 연령과 근무기간으로서, 연령은 30-40대인 경우, 근무기간은 5-10년 미만의 기자들 사이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30-40대 및 5-10년 근무기간의 기자들이 가장 많은 취재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고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 간의 영역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영역으로는 '물리환경',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4가지 영역에서는 취재기자들이 사진기자 보다 높았으나, '물리환경'의 경우는 사진기자들이 취재기자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기자들 직종 간에도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넷째, 흡연, 음주, 운동, 정기검진, 건강식품복용, 규칙적 수면, 그리고 하루 세끼의 규칙적 식사 등의 7개의 건강행위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특성에 따른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로는 흡연, 음주, 운동 등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40대 연령층에서 운동 실천율이 높았고, 정기검진과 규칙적 식사에서는 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학력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의 정기검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에 비해 5-10년 미만 및 10년 이상 이상인 집단에서 규칙적 운동 실천율과 정기검진 수검율, 그리고 규칙적 식사의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간의 건강행위 실천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진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로는 직무 요구로서 취재에 대한 압박감, 책임 등과 같은 직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흡연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식품의 경우 물리환경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복용하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 요인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건강행위는 규칙적 수면으로서 물리환경, 직무요구,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의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규칙적 수면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음주(주 1회 이하 vs 주 2회 이상), 운동, 정기검진의 경우 8개의 하부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 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못하였지만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나아가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전향적 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 문헌

- 강승훈. 직무불안감과 직무 태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광운. 전남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전남대학교 학교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2집, 1989.
- 김남진. 직장인들의 운동실천 정도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대환, 김희동. 남성사무직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습관.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002;19(2): 45-55.
- 김선숙.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대처기술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일순, 지선하, 오희철, 서일. 한국인의 40대 사망, 한국역학회지, 1990;12(2);191-210.
- 김진희. 신문사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문창진. 보건의료사회학, 신광출판사, 2001.
- 박광희, 유희숙.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가정의학회지 2003, 41(6) 167-183.
- 박두혁, 신재은.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건강의식과 병원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 대한병원협회지, 1996;25(236).
- 배수진, 최신 스트레스 관리, 학문사, 2000.

- 유기현, 근로자 스트레스의 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 경영연구 제7권 제1호, 2001.
- 유창하, 언론의 내적 통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강성,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 및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병훈, 포토저널리즘, 나남출판, 1999.
- 이상우, 류창하. 현대신문제작론, 나남출판, 1995.
- 이종목.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성원사, 1989.
- 장세진. 스트레스의 사회심리적 요인, 한국역학회지, 2002;24(2); 148-163.
- 장세진. 스트레스 연구의 의료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1996;30(봄호);125-149.
- 장세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현황 및 실태, 제10회 기초의학(공동)학술대회 및 2002년도 대한예방의학회 춘계 심포지움, 2002;9-36.
- 장세진 외.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의 파악,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보건복지부, 2001.
- 정영송.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성기. 병원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생활습관과 사회심리적 건강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헌치.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의 효과 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차봉석, 장세진, 이명근.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업성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89; 22(1); 90-101.
- 최미경. 서울시내 직장인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한국기자협회. 신문편집, 녹원, 1991;62-82.
- Conger, JJ. Adolescence & youth :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N,Y: Harper & Row Publishers.
- Mccormick, EJ. Job analysis : methods and application. New York : Ama com, 1979.
- Peterson, M., Dunnagan, T., Analysis of worksite health promotion program's impact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1998; 40(11); 973-979.
- P.Davison, etc, Mass Media System and Effect(Holt Rinehart & Winston, 1979;90.
- Quick, JC., Quick, JD., Nelson, DL., & Hurrell, JJ, Preventing Stress Managemant in Orgarnizations,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1997.
- Selye, M.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J. B. Lippincott, 1974.
- Smith, PC. Job satisfaction : how people feel about their jobs and how it effect their performance. New York :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 인사의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박명근 입니다. 본 설문은 신문사 사진기자의 업무특성과 건강행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무기명 처리되므로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데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박명근 올림  
e-mail : root0729@hanmail.net

**☞ 사진기자과 취재기자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1번부터 16번까지).**

1. 다음의 문항들은 응답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자료를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답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1) 성별                     ① 남                                     ② 여
- 2) 연령                    만 (                                    세 )
-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 4)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가 없음
- 5)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이하  
                                   ③ 대학졸 이하                                     ④ 대학원졸 이하
- 6)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총소득 (                                    만원 )
- 7) 귀하의 신문사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 (                    개월 )
- 8) 귀하의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파견근로                                     ④ 일용직
- 9) 귀하의 현 부서 (                                    ), 직위 (                                    )

2.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예	아니오
1. 나는 취재중에 취재원으로부터 원치 않는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2. 나는 정당한 취재중에 취재원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3. 나는 '뺨치기(취재원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로 인해 신체리듬이 깨져 다음 취재 활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4. 나는 취재경쟁으로 인해 동료기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5. 나는 취재한 내용이 본의 아니게 사실에 어긋나거나 과장되어 취재원이나 피해집단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우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3. 귀하는 평소에 정기적인 검진이나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만약 정기적인 검진이나 진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① 바쁜 업무로 병원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② 진료결과가 두려워서

③ 진료비가 부담되서

④ 곧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⑤ 기타 ( )

5. 귀하는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보약이나, 영양제, 비타민 등을 복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1회 30분 이상)**을 1주일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주 1회

③ 주 2 ~ 3회

④ 주 4 ~ 5회

⑤ 거의 매일

7. 귀하는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귀하는 **규칙적인 수면을**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1.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4시간 미만

② 4 ~ 5시간

③ 5 ~ 6시간

④ 6 ~ 7시간

⑤ 7 ~ 8시간

⑥ 8시간 이상

9.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은 10번 문항으로 가주십시오.

9-1. 귀하의 하루 흡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반갑 이하

② 한갑 정도

③ 한갑~ 두갑 사이

④ 두갑 이상

10. 귀하는 일주일에 평균 며칠 술을 드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1회

③ 2 ~ 3회

④ 4 ~ 5회

⑤ 거의 매일

11. 귀하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2. 귀하는 기자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다소 만족한 편이다

- ③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기타 ( )

13. 귀하는 지금까지 재직하는 동안 현장에서 겪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예’ 라고 응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3-1. 만약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외래 당일 또는 응급실 진료
- ② 일주일 미만의 입원치료
- ③ 15일 미만의 입원치료
- ④ 한달 미만의 입원치료
- ⑤ 한달 이상

14.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비슷한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2.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3. 업무 수행중에 충분한 휴식(잠)이 주어진다.				
4.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6.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7. 작업시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에게 대해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8. 나의 업무량과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9.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0.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12.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3.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예 :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 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15.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6.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진다.				
17.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18.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19.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 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20.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1.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22.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지시를 받는다.				
23.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24.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25. 내가 근무하는 장소는 깨끗하고 쾌적하다.				
26.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27.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15. 아래의 질문은 최근 몇 주 동안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물어 본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4.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5.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6.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7. 밤이면 심란해 지거나 불안해 진다.				
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9.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10.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11. 어떤 일을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12.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13.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 진다.				
14.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5.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6. 나 자신에 대해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8.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16. 귀하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책을 갖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16-1. 만약 스트레스 해소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① 스포츠활동

② 취미나 교양 분야의 여가활동

③ 관람이나 감상

④ 놀이, 오락

⑤ 자기개발 활동

⑥ 기타 ( )



- ① 사진기자의 소명을 가족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 ② 언젠가는 알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 간다
- ③ 가족이 우선이므로 회사에 협조를 구해 가급적 밤 시간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

**4. 귀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한 집회 현장이나 분쟁지역으로 취재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까?**

- ① 사진기자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한다
- ② 별다른 거부감없이 임한다
- ③ 신변의 위협이 예상되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 )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on Health-related Behaviors  
in Photo Pressmen**

Myeong-keun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i-Jin Chang, Ph.D)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at some kinds of job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adverse health outcomes.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health-related behaviors such as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and sleep disorder influence the proces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health.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in photo pressmen.

A total of 304 pressmen (152 photo pressmen, 152 report pressmen) were recrui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socio-demographics, 7 health-related behaviors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regular check-up, health foods, regular meal, and sleep

disorder), and 27 items of occupational stress which involves 8 sub-scales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12.0 for Window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nd marital statu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8 sub-scales of occupational stress to health-related behaviors in photo pressmen were performed. Cigarette smoking was associated with high job demand, and consumption of health foods was more in people who felt low physical environment. Respondents who reported high physical environment, high job demand, and high occupational system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leep problems. No significant relation of alcohol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and regular check-up to 8 sub-scales of occupational stress were fou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occupational stress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actice of health-related behaviors, although positive findings between 8 sub-scales of occupational stress and all health-related behaviors were not found, and plays a pivotal role in the process of stress-illness relationship.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stress management program which was concerned with health-related behaviors in bo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s should be performed.

---

Key Words: Photo pressmen, Job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stress,  
Health-related behaviors